

한국 무용교육의 시대적 동향과 과제 연구*

김 명 회**

목 차

Abstract

I. 서 론

II. 한국 무용교육의 흐름

III. 문화예술교육으로의 무용교육의
의미와 현상

IV. 무용교육의 과제

1. 예술교과로의 독립

2. 전문교사의 양성

3. 무용교육 표준 개발과 적용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A study of contemporary trend and challenges of dance education in Korea

Kim, Myung-whae · Seowon University

Today than any kind of age, there seems to be again no time which maintains the organic relationship of which the art life and education are sticky and cooperation each other. The not only Korea that the whole flow which are education is globally spread to the cultural art education is claim of 21st century art education and It is same native place of Korea dance education and It is the subject.

At this side, the stiffening thought has to be thrown away of which separated by the dance education to train dance artists and the dance 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because all people are the subject of creation and cultural producers of subject in this society. It has to approach

* 본 논문은 예술교육의 새로운 흐름 및 동향(공립예술고 교육과정 및 운영방안연구)에서 연구자에 의해 발제된 '우리나라 무용교육의 흐름과 과제'를 수정 보완하여 게재한 것임.

** 서원대학교 임상건강운동학과 교수

논문투고일: 2014. 01. 20. 심사일: 2014. 02. 10. 게재확정일: 2014. 03. 01.

the dance education with the professionalism emphasized the nature of the art education over the one's whole life more and more.

As the creativity that is the core element of the art is formed in the art creation process and cultivated by its knowledge and learning, In school education, dance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by state continuously learn by high quality of education so that the attempting the publicness of the dance and also, works to foster creative talent to understand that each of the arts and culture between art genres its integration as flexible thinking and other disciplines and 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of research will also enable.

Korean dance education from the school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when done properly meet the real needs of cultural arts education can be established that should be addressed in the present study emphasizes the quality of projects to be :-

First, Be subject to an independent art.

Second, Professional teacher training.

Third, State-of- the dance presents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ducational standards.

A series of all efforts are great dance artists, dance educators, creative talents to create a high culture of civil society as to make one and therefore, expecting the subsequent study about the qualitative subject and its fulfillment.

key words: contemporary trend, cultural and arts education, creativity, publicness, cultural literacy

주요어: 시대적 동향, 문화예술교육, 창의성, 공공성, 문화적 리터러시

I . 서론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로 규정하며 학자들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나라, 지식 대통합을 통한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창의력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해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어령은 20세기가 전문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통합의 시대이며, 지식사회를 선도해갈 인재들은 전문가들이 간과한 지식대통합을 통해 넘나드는 창조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생각의 탄생」 저자 로버트 루트 번스타인은 “21세기는 정치, 경제, 사회, 지식과 노하우를 ‘새롭게’ 조합할 수 있는 사상가와 행동가가 필요하다. 젊은이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창의성과 상상력을 위해 교육시켜야 한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열쇠는 바로 예술이고 예술은 모든 문화에 걸쳐 창의적 실천의 중심이었다.”(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2010a:225. 재인용)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오늘날 이 사회에서 예술을 통한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예

술교육이 담당해야 할 사회적·문화적 역할의 비중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무용교육은 현재 교육과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고급문화 창출과 창의적 인재 배출에 그 몫을 다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한국의 무용교육은 무용가를 배출하는 전문 무용교육과 일반인들을 위한 학교 무용교육과 사회무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용을 가르치는 모든 교육적 행위를 무용교육의 범위로 볼 때 학습목표에 따라 교육과정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무용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의력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전인교육에 이바지해야 하는 예술교육이므로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도 매우 중요하며 특히 학교 교육에서 무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때 무용의 예술적 가치와 역할을 발휘하여 창의적 인재와 훌륭한 무용가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무용은 음악, 미술, 문학과 같이 분명 예술이 틀림없고 예술교육으로 사회적, 문화적 역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예술이 아닌 기능중심의 신체 활동이라는 측면으로 체육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무용교육이 지나치게 무용수를 배출하는 기능중심, 공연중심의 무용교육으로 편중되어 온 이유가 클 것이고 무용교육자들의 무용교육 일반에 대한 노력은 엘리트교육과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던 결과일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무용교육의 시대적 동향인 문화예술교육에서 무용예술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학교교육 제도에서 무용교육이 아직도 예술교육으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를 고찰해봄으로써 그 문제점을 강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학교교육제도에서 무용교육이 예술의 형태로 교육되어야만 하는 당위성과 문화예술교육으로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실천할 때 사회적, 문화적으로 기여하는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시킬 것이다.

II . 한국 무용교육의 흐름

무용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언어로 표현하기 전에 몸으로 풀어내는 비언어적 표현수단으로 고대의 제의나 축제에서 공동체 의식으로 시작된 것이었고 인간의 역사를 통해 몸을 움직이는 가장 인간적인 사회적 현상이며 그 몸은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방식이면서 세계의 경험을 담고 있다. 또한, 외부 세계, 환경과의 관계에 의해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의 표현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몸의 보편적 능력은 원시시대의 춤의 의미에서 잘 나타나 있다. 원시시대의 춤은 삶 그 자체였으며 소통의 중요한 수단이었고 공동체적 일체감을 느낄 때 신력에 가까운 생존의 힘을 발휘하였다. 역사적으로 춤이 없는 사회가 없었듯이, 춤은 언제나 존재하고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면서 각 사회의 문화적 상징들을 담고 있어 문화를 이해하는 훌륭한 도구이기도 하였다(김명희, 2012:32).

이러한 보편적 기능을 갖고 있는 무용은 서양의 고대 문명국 그리스에서부터 동양의 공자(孔子)에 이르기까지 오래전부터 전인교육의 수단으로 매우 중시하였으며 이러한 정신은 서양에서는 황실무용학교의 설립, 무용이론의 연구, 전문교사양성을 통해 무용교육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공자의 ‘육예: 六藝’ 사상의 영향을 받아 높은 경지의 예술을 덕치(德治)에 응용하였으며 1910년 궁중음악과 무용을 맡았던 궁중소속의 장악원(掌樂院)을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로 개칭하면서 전문무용인을 교육하기 시작하였다(김옥진, 2002:35).

무용이 학교교육에 유입되는 시기는 1880~90년대로, 독일의 학교교육에 체조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체조동작과 무용동작을 조합한 “음악유희”라는 명칭으로 교육되면서 중요한 교과목으로 확대, 발전되어 학교 무용교육의 기초가 된다. 1930년대 우리나라에도 독일의 여성체육이 일본을 통해 들어오고 학교교육에서 체육과 함께 ‘유희’라는 이름으로 무용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8.15 해방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민족 주체적 입장에서 정치,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해방과 더불어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지.덕.체로 조화를 이루는 전인교육을 목표로 전교생 대상으로 ‘유희’ ‘마스게임’ 형태인 무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밖에서는, 전문적인 무용가 양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깨달은 당시 유학과 무용가들이 문교부 승인을 얻어 명동에 <조선교육무용연구소>를 설립하고 무용이론과 실기를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학교교육 내에 무용교육이 자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1945년 이화여자대학교에 체육과가 창설되면서 대학의 무용교육이 체육학과 맥을 같이 하게 되고 전쟁 중에도 이화여대는 부산에 임시학교를 운영하여 체육과에서 창작무용을 가르쳤다. 이러한 노력은 1953년, 예술교육의 선각자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예술학교인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여 미래의 무용전문가를 조기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기틀을 잡게 하였으며, 학교 무용교육은 최초의 체계적 교육과정인 제1차 교육과정인 1955년 문교부령으로 고시되어 무용교육은 체육 교과안에 초등- ‘리듬놀이’, 중등- ‘무용’의 영역으로 지정된다. 위와 같이 무용교육은 학교교육 내에서는 체육 교과안의 한 영역

으로, 학교 교육 밖에서는 무용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 무용교육으로 확산되었다.

1963년 이화여대 무용과가 생기면서 무용교육은 전문인 양성을 위한 엘리트 교육의 시대를 맞이하고 곧이어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수도여자사범대학교 등에 무용과가 창설되었다. 또한 1976년 선화예술고등학교가 설립되면서 무용전문가를 길러내는 기능중심, 공연중심의 엘리트 무용교육이 본격화되었고 오늘까지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제 2차에서 제 5차 교육과정안에서 학교 무용교육은 건전한 심신을 갖춘 인간육성의 목표로 한 체육의 한 영역으로, 여전히 신체단련과 단순한 지식습득에 지나지 않았고 한 때는 여학생만을 위한 과목으로 인식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후반까지 대학에서는 약 20여개의 예술고등학교에서 배출된 무용 엘리트들을 받아들이면서 한 때 50여개 까지 대학 무용(학)과는 확산되었다. 따라서 무용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내세운 교수 개인무용단과 동문 단체무용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양적, 질적 황금기를 맞이하였다.

공연예술 측면에서, 무용의 황금기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무용수 배출, 우수한 작품의 생산, 우리 무용의 국제적 위상 상승, 활발한 국제적 교류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무용의 황금기에 꽃피웠던 고급예술로서의 엘리트무용은 일반인들의 삶에서, 그들이 받게 되는 공교육에서 멀어지는 특정인들을 위한 무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들의 저항을 받게 되었다.

이 시사점은 무용의 양극화 현상 즉, 엘리트교육을 받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 예술 중·고등학교와 일반학교 무용교육의 이질성, 고급한 무용과 저급한 무용의 규정화, 계층 간 문화 수용의 격차로 인한 무용예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상승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7년경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 시민사회의 전통을 세워나가기 위해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국민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well-being과 같은 가치관이 사회전반에 대두되고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시민사회가 문화예술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김명희, 2012:34). 그래서 문화민주주의에 기초를 둔 커뮤니티 아트와 필요성이 강조되고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예술, 대중이 직접 창작하는 예술, 공동체의 관심을 반영하는 예술을 지향하게 되었다.

1995년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과 21세기를 이끌어갈 한국의 미래 인간상 구축의 필요성으로 제 6. 7차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 까지 체육은 초·중등 교육과정의 ‘국민 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무용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창의적인 표현능력과 심미적 태도를 함양하여 창의력 있는 인재

를 양성하는 예술교육으로 전환되어 초·중등과정에서 10년 동안 연계적으로 교육되도록 구성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체육 교과안의 한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유미희, 2009:57).

체육 교과안의 무용교육은 한계가 있으며, 입시위주의 교육현장에서 체육 수업시수 감소에 따른 무용시수 절대부족과 교사의 전문성 부족, 전문 무용인이 배제된 교과서 편찬에 의한 교육내용 체계의 부실화는 무용의 예술적, 사회적 가치에 따른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무용의 양극화 현상과 커뮤니티 아트의 확산은 비록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에 따른 예술교육의 역할과 방법을 모색하게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입시제도의 변화와 무용 전공 희망 학생 수 감소, IMF 이후 경제논리에 인한 대학 구조조정에 의해 무용의 황금기를 주도했던 대학 무용학과가 위기를 맞으며 무용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 방향에 대해 무용교육자들은 연구하기 시작했다.

문화관광부는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진흥원)을 설립하여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했으며, 광의의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역량강화이고 협의의 목표는 학교 안, 밖에서 문화예술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IT지식정보화시대 신 성장 동력을 위한 전문 인력 고용창출을 목표로 출발하였다(최현묵, 2011:31).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각 대학교의 무용학과에 희망을 가져다준 이유는 이 사업을 통해 무용교육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생겼으며, 대학 무용학과는 취업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대학교의 무용교육이 기능위주, 공연중심의 엘리트 무용교육에 사로잡혀 예술교육의 시대적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였다는 점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무용교육계는 예술강사지원제를 기점으로 학교 교육 내 무용교육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모든 이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방향과 방법론을 정립하기 시작하였고 무용의 교육적, 사회적 가치를 발휘하여 무용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하였다. 2005년도에 시작된 무용분야 예술 강사는 100개의 초등학교에 110명이 파견되었고, 교육 현장의 요구에 의해 2013년에는 1,678개의 초·중·고·대안·특수학교, 특목고에 851명의 예술 강사가 파견되어 무용교육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체육 교과안의 한 영역으로 무용 예술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 못했던 교육적 현실을 감안할 때 무용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이 시대가 이미 예술교육은 예술가를 위한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는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예술적 감성이 조화된 지적성장을 가져오게 함과 동시에 국민의 창의적인 문화역량 강화로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는 복지 차원의 문화예술교육으로 규정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침’으로 지정된 30개의 예술·체육중점학교의 운영분야를 보면 음악13, 미술8, 체육7, 공연·영상 2개교로 무용분야는 빠져 있다(허소민, 2013). 이 점은 우리나라 예술교육이 지나치게 음악, 미술에 치우쳐 있고 무용은 체육 교과과의 한 영역으로 오랫동안 교육되어지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교육 학습권을 제공하지 못한데서 오는 무용예술에 대한 인식부족 현상으로 볼 수 있다.

III. 문화예술교육으로의 무용교육의 의미와 현상

Eliaine Baldwin의(2004: 25)는 문화의 개념을 첫째, 예술과 예술적 활동, 둘째, 일차적으로 상징적 특징을 지니는 특정한 생활방식, 셋째, 발전의 과정으로 정의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예술은 지역공동체와 한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다. 문화는 지속적인 학습에 의해서 공동체로부터 습득하고 전달받아 생성되었다. 산업과 자유민주주의의 발달은 예술의 민주화를 이루었고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 예술 활동과 문화적 생활방식을 확장시켰다. 개인들은 더 나은 교육수준과 지적교양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예술교육을 통해 더 높은 사회계층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

또한 IT지식정보산업화 사회, 글로벌 시대, 다문화 사회를 맞이한 우리 사회는 교육과 생활이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시대로 급하게 변해 간다. 이러한 변화에 우리에게는 지식정보의 홍수를 통제할 수 있는 복합적 능력과 윤리 의식, 신체적 움직임, 감성, 다양성을 구현하는 ‘삶의 방식’을 반영한 문화적 리터러시(이상일, 2010:48)가 중요하게 되었다.

무용의 매체인 몸은 리듬, 시각적 이미지, 오감, 상상력보다 더 무한한 soul을 지닌 총체적 예술 그 자체이다. 그 몸이 사회와 만나 소통할 때 문화적 다양성을 그려내고 다분히 폭발적인 표현성을 발휘하며 문화적으로 형성된다. 현대의 예술가들 뿐 아니라 사람들은 이러한 몸에 매료되어 몸을 실험하고 일상생활과 접목시키며 다양한 매체와의 상호

작용을 시도한다. 그래서 무용은 문화적 리터러시를 요구하는 21세기 예술교육이 필요로 하는 몸의 예술 그 자체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으며, 무용은 예술적 소산이 바로 몸으로 표현되는 활동(Eliaine Baldwin, 조애리 외 역, 2004:182)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술교육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김문환(2010:30-31)은 “예술은 감각들의 표상언어로서 담론적 언어나 과학적 언어 등 다른 종류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될 수 없는 의미를 전달한다. 우리는 예술을 통해 한 사회의 상징적 표상을 발견하기에 예술에 대한 지식 없이는 그 문화에 대해 오로지 피상적인 지식만 가질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아표현과 문화로서의 교육예술은 문화적 정체성 확인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도구이며 예술은 이처럼 개성적 표현과 사회적 통합을 발전시킨다. 이는 건전한 교육이 마땅히 지녀야 할 목표이다. 사회적 통합의 중요한 성취는 시민성의 의식으로서, 역사와 예술에 대한 지식 없이는, 시민성을 위한 교육은 공허한 것이다. 이와 같은 뜻에서의 예술교육은 물론 학교교육에서 하나의 중핵과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예술교육을 통한 지적 성장 및 사회적 접촉과 교류가 주변 환경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맞물리게 되면 예술 상호간의 이해와 교류를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예술과 인접 학문, 과학, 경제, 정치, 국제관계에 시야를 넓히게 되고 그만큼 예술적 총체성과 학제간의 연계와 협조 등 인터디시플리너리interdisciplinary한 창의적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상일(2010:46)은 예술과 문화의 유연성이 새로운 차원의 교육적 목표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동시대에 예술교육의 사회적, 문화적 역할이 커진 만큼 우리나라의 무용교육도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으며 그동안 경직되어 왔던 무용예술인을 양성하는 무용교육과 일반인들을 위한 무용교육이 이제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문화예술의 새로운 기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H. Read는 교육의 기초를 예술에 두어야한다고 했으며,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예술교육을 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술교육은 인간의 창의성 개발은 물론, 미적 감수성의 함양에 있어서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김재은, 2007:25). 이러한 예술의 핵심적인 요소는 ‘창의성’이며 21세기의 화두도 ‘창의성’이다. 그래서 창의성하면 예술과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어김없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창의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교육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예술’을 국가의 핵심교과로 채택하고 국민들의 문화역량 강화의 실천에 예술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미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예술교육이 국가

의 핵심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 주state, 협회차원 등에서 국가 표준National Standard도 제시되고 있다. 예술교과의 영역은 공통적으로 무용, 음악, 연극, 시각예술, 매체예술이 포함되어 있고 12학년까지의 전 교육과정을 마칠 때 까지 학생들의 연령에 맞게 단계적으로 반드시 이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 공통기본과정에 예술이 포함되지만 예술교과의 영역은 음악, 미술뿐이고 무용은 체육 교과안에 포함되어 있어 당연히 체육교육과정안에 한 영역으로 교육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나마 진흥원의 예술(무용) 강사들을 위한 무용교수-학습과정에 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표준이 마련된 정도이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학생들이 받는 예술교육의 수혜는 불평등하고 시대착오적인 매우 미흡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교육으로의 무용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5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예술강사지원사업’일 것이다. 초·중·고등학교에 파견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술(무용)강사와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회관에 파견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무용)강사가 주축이 되어 무용교육의 예술적 가치를 사회에 알리게 되고 각 계층과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무용단체들, 무용가들의 교육활동으로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그 외 무용공연계에서도 교육과 연계된 형태의 프로젝트 공연을 시도하고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한 각 지역의 문화재단들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 예술 공간 제공과 각종 프로그램 개발, 예술교육센터(예: 흥은예술창작센터)등을 만들어 무용예술을 통한 지역공동체 문화를 창조해 가고 있다. 이러한 양적, 물적 지원은 문화예술 선진국에 뒤지지 않으나 가장 큰 문제는 무용분야의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양질의 콘텐츠 개발, 창의적인 교수방법론 등이 약하다는 것이다.

전문 인력의 문제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일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고 그 요리법이나 재배법, 상품화하는 방법을 창조할 수 있듯이 문화예술교육과 전문 인력양성은 학교교육에서부터 핵심과정으로 그 기초를 만들어 나가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어 양질의 교육으로 학습될 때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는 학습권 규정과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교육의 기회균등의 규정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 2항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

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라는 규정과 일치한다.

이런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법 규정을 보더라도 학교교육에서 예술교육은 균형 있게 구성되고 학습권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으로의 무용교육의 효과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 CERII¹⁾는 <예술을 위한 예술? 예술교육의 영향>보고서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 IQ, 공간안자능력, 관찰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전반적 학습능력에서 예술교육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그중 무용은 무용 수업을 들은 학생이 듣지 않은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아지고 공간지각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문제해결능력에서 판단력과 분석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컬럼비아의 ‘몸의 학교’는 내전으로 극심한 빈곤과 폭력, 차별에 시달리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춤을 통한 교육으로 건강한 삶을 꾸릴 기회와 건전한 사회 환경을 만들어 준 문화예술교육의 성공 모델이 되었다.

2011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청소년 감성 키움 프로젝트 ‘상상학교-<꿈! 틀! Dream a Motion>’커뮤니티 댄스 공연에는 서울의 10개 청소년 수련관의 130여명의 청소년들과 20명의 무용안무가들이 참가하였고 3개월에 걸친 무용 워크숍 진행한 결과물이었다. 자신을 재발견하고 새롭게 표현하는 방식과 몸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김포 통진중학교 무용동아리는 무용수업의 재미가 무용동아리로 이어지고 학교에서 배운 춤으로 전공학생들이 출연하는 각종 무용대회에서 수상하는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춤으로 감동을 배우고 새로운 세상을 만난 문화예술교육의 생생한 현장 성과이다.

이렇듯, 무용이 교육을 통해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며 나아가 개인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간다는 공식은 기존의 예술교육의 개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무용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전이되고 현재 우리나라 무용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흐름이며 시대적 동향으로 간주된다.

1)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은 1967년 OECD에 의해 설립된 독자적 의사결정 체제를 가진 부속기구로서 교육 관련 정책 연구 및 교육 혁신을 위한 이론연구를 수행하는 OECD내 독립기구이다.

IV. 무용교육의 과제

지금까지 한국 무용교육의 흐름과 문화예술교육으로의 무용교육의 의미와 현상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무용은 체육이 아닌 예술교육으로서 자리 잡아야 마땅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그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인들을 위한 학교 무용교육이라 해서 예술교육의 본질이 결여된 기능답습으로 간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용교육의 질적인 과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1. 예술교과로의 독립

우리나라 교육체제 안에서 예술교육은 각 예술장르가 가지고 있는 미학적·철학적 본질은 말할 것 없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심리·생리적 성격이 아주 다른데도 주로 기능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조되어 예·체능교육으로 표현되고 각 장르별 교육으로 다루었지 ‘예술’이라는 통합된 분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술 교육의 발전이 빛나가고 있음을(김재은, 2007:3) 예술교육자들은 인지하고 있다.

한편, 음악, 미술, 무용이 문화예술의 한 장르 요소였을 때는 예술교육도 그만큼 비중이 서로 분할될 수 있지만 인간의 몸이 문화예술의 핵심으로 들어있는 디지털시대의 상황에서는 몸의 예술인 무용 등 예술교육의 비중이 중차대해 질 수밖에 없음을 예술가나 예술교육자들 스스로가 인지해 나오고 있다. 예술장르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예술 상호간의 소통과 융합이 바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이상일, 2010:48).

또한, ‘유네스코 서울 선언’²⁾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감성적, 미적, 사회적, 인지적, 창의적 능력의 조화로운 계발의 근간으로서 예술교육을 주창하였고 그 접근성을 학교교육에서 보장하고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예술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제는 학교교육에서도 무용은 창의력과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예술장르로서 몸을 통해 소통하고 삶의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를

2) ‘유네스코 서울 선언’은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채택되었으며 3가지 예술교육 발전 목표를 제시한다.

목표1. 심도 있는 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지속적 요소로서 예술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한다.

목표2. 예술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 부터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수준을 유지한다.

목표3.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 문화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의 원리와 실천을 적용한다.

기르는 예술교과로 체육의 한 영역에서 마땅히 독립해야만 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무용이 예술교과로 독립되어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시급한 과제이면서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30여 년 전부터 무용계에서 주장해 왔지만, 2002년 12월 무용교육혁신위원회(구: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의 ‘제1차 심포지엄 및 범 무용인 결의대회’에서 문서 및 행동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며, 이 후 ‘무용·연극 합동토론회 및 쉼기대회’(2003.10), 그리고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예술교육 개혁을 위한 토론회’(2003.11)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김화숙은 “무용교육 개혁의 긴급성”(1991), “초·중등 무용교과 독립의 정당성 연구”(2004) 그리고 무용·연극·영화 합동세미나에서 “미래형 교육과정 예술교과에 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2009)는 발제문을 발표했으며, 최근까지 10여 차례의 지속적인 세미나를 통해 이 문제를 부각시켜왔다. 2013년에는 문화융성위원회에 정식으로 건의되어 예술교과에 무용, 연극이 포함되어야 한다(연합뉴스 10.25/매일경제 11.20)고 보도를 이끌어 내어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2. 전문교사의 양성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교사의 우수한 능력과 우수 교사의 확보일 것이다.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질적인 무용교사 양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은 무용이 예술교과로 분리되면 차차 해결될 과제이겠지만 현 실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예술교과로서 독립되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시간을 요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학교현장의 전문 인력의 실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대학에서 배출하는데 교육대학 내 무용관련과목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예비교사들이 무용에 대한 지식 및 기술, 정보 등을 축적하는 것이 미흡하고 따라서 무용을 가르치기 위한 지도력을 배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최경희, 2011:34). 중·고등학교에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서 배출된 체육교사자격증을 받은 무용교사가 배치되지만 매우 적은 실정이며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에 밀려 체육을 가르치기도 벅하다. 그렇다면 현재 학교현장에 있는 교사로서는 무용교육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행히 진흥원의 예술(무용)강사가 학교현장에 투입되어 부족한 무용교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무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홍원의 ‘예술강사’는 대부분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대학교 무용학과가 배출하고 있다. 무용학과의 커리큘럼을 보면 그들의 교사로서의 능력을 우수하다고 가늠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물론,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70% 이상이 실기교과목이고 이론 또한 역사와 몇 개의 교육이론을 제외한 대부분이 실기를 위한 이론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커리큘럼은 무용교육자 양성과는 거리가 멀다. 대부분의 무용학과가 공연예술가와 지도자를 양성하는 쪽으로 치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진홍원은 무용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소정의 연수를 진행하고 국가자격증인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시행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장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관성 없는 연수계획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담보하기 힘들고 문화예술교육사의 예술전문성 교과목은 현행 대학교 무용학과에서 개설된 유사과목으로 대체하고 있다. 대학 무용학과 커리큘럼의 대부분이 실기와 실기를 위한 이론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사의 예술전문성의 질적 평가는 매우 모호해 질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대학의 무용학과는 무용교육의 정체성 확립과 무용교사 자격증의 실현을 위해서도 문화예술교육자를 양성하는 커리큘럼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무용교수 능력 배양은 물론, 무용과 학제 간 영역들을 조합하고 타 예술 장르를 통합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무용교육 표준 개발과 적용

예술인 무용이 국가핵심교육과정에 포함되고 무용교육표준이 개발되어 실제로 무용교육에 적용시켜 실행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뉴욕시 교육부는 뉴욕시의 모든 공립학교 예술교육 수업의 지침서인 블루프린트(The Blueprint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Arts)를 2005년에 개발하여 현재 활용되고 있다. 예술은 학생들의 삶을 풍부하게해주는 것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훌륭한 예술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믿음아래 뉴욕시는 역사상 처음으로 ‘예술교육 기본계획(Arts Blueprint)’을 작성하는 것으로 예술교육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고 이 기본계획은 무용, 음악, 연극, 시각미술의 예술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 틀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블루 프린트’는 ① 무용 만들기 ②

무용 리터러시 개발 ③ 관계성 만들기 ④ 지역사회와 문화적 자원과의 협력 ⑤ 경력개발과 평생학습의 5가지 무용학습 요소(영역)³⁾를 제시 하고 있다(윤정민, 2010:157-159).

호주의 국가수준 교육과정(Draft Shape of the Australian Curriculum: The Arts)은 호주교육과정 평가 보고 당국(ACARA)에 의해 2008년부터 초안이 개발되어 예술교육과정은 2012년에, 모든 교육과정 영역은 2013년에 최종안 작성이 완료되어 적용되었으며, 예술학습영역에는 무용, 드라마, 매체예술, 음악, 시각예술이 있다. 예술교육과정은 K-2에서 12학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우리는 예술에 참여할 때 어떤 일들을 하는가?”에 대한 핵심 질문을 통해 3가지의 ‘요소(strand): 상호작용 과정’을 모든 예술영역에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3가지 ‘요소: 상호작용 과정’은 ① 발생시키다generating ② 실현하다realizing ③ 반응하다responding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개발팀에 의해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무용’을 2011년에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무용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예술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사교육에서도 교육기준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① 실행(춤추기), ② 창작(춤 만들기), ③ 감상(춤 읽기), ④ 소통(춤 나누기)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체험/이해- 탐구/발견- 확장/응용의 3단계를 거쳐 댄스 리터러시에 도달한다(서예원 외, 2011:34-60).

이 무용교육표준이 현재 무용교육에 적용시켜 실행되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조사해 본 것처럼, 무용교육의 기초 원리와 개념을 정립하고 교육표준을 제시하여 실천하는 것은 21세기 문화예술교육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과제이며 세계적인 흐름이다. 우리나라도 빨리 국가수준의 무용교육표준이 개발되고 무용교육모형이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진정한 예술교육으로의 무용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블루프린트’의 5가지 무용학습요소는 1. Dance Making 2. Developing Dance Literacy 3. Making Connections 4. Working with Community and Cultural Resources 5. Exploring Careers and lifelong Learning 이다.

V. 결론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날, 예술과 생활, 교육이 끈끈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공조하는 시대는 다시없을 듯하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술교육이 문화예술교육으로 확산되는 흐름은 21세기 예술교육의 요구이자 우리나라 무용교육의 시대적 동향이며 과제이다.

모든 국민들이 창작의 주체가 되고 문화 생산자가 되는 이 사회에 무용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더더욱 예술교육의 본질을 강조하는 전문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용예술인을 양성하는 무용교육과 일반인을 위한 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을 분리하여 교육하던 차별화된 사고는 버리고 문화예술교육으로의 무용교육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예술의 핵심요소인 '창의성'은 예술 창작과정에서 형성되고 그에 대한 지식과 학습에 의해서 배양되는 것처럼 학교교육에서 무용교육이 양질의 수준 높은 교육으로 지속적으로 학습되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것은 무용의 공공성(publicness)을 꾀하는 일이며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일이다. 또한, 그들에게 각각의 예술과 문화를 이해하는 유연한 사고로 예술장르간의 통합, 타 학문과의 학제 간 통합연구도 가능케 할 것이다.

우리나라 무용교육이 학교교육에서부터 제대로 이루어질 때 동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한 문화예술교육이 확립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본 연구에서는 무용교육의 질적인 과제를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예술교과로의 독립으로, 학교교육체제에서 무용교육의 정체성 확립 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의 실천을 위해서 무용은 예술교과에서 표기과목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장르별 이기주의와 기능적 측면을 강조해왔던 우리나라 예술교육이 각 장르별 교육을 넘어선 '통합'된 분야로의 예술교육으로 다루어질 때 그 가치와 효과는 제대로 발휘될 것이다.

둘째, 전문교사의 양성으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수한 교사의 확보이다. 현재 학교교육에서 무용교육 전문교사의 양성체제는 사실상 매우 열악하여 무용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무용이 예술교과로 분리되면 차츰 해결될 문제이지만 우선, 대학 무용(학)과의 교육과정이 무용지도자양성 중심으로 변화되어 무용교사자격증의 취

득을 위한 내용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문화예술교육사의 예술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

셋째, 국가 수준의 무용교육 표준 개발과 적용으로, 국가는 학생들의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하는 것은 예술임을 인지하고 교육기본법에 의거해 그들에게 양질의 무용교육을 제공하여 학습의 기회를 주고 예술교육을 받을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하여 현행 체육교육과정이 아닌 예술교과로의 무용교육표준이 국가수준으로 개발되어 실제로 무용교육에 적용시키는 것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일련의 모든 노력은 미래의 훌륭한 무용예술가, 무용교육자, 창의적인 인재를 배출하는 일이며 더불어 수준 높은 문화를 창조하는 시민사회를 만드는 일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무용교육의 질적 과제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와 실행방법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명희(2012), “커뮤니티 댄스의 적용과 과제”, **커뮤니티댄스와 무용교육**, 2012. 6. 23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 ECC B 157, 한국무용교육학회, **제19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한국무용교육학회**.
- 김문환(2010), “문화예술교육의 의의”, **무용교육의 힘**, 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 펴냄. 서울: 댄스뷰.
- 김옥진(2002), “무용교육의 재정립”, 한국무용교육학회, **제9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 김재은(2007), **창의성과 무용교육**, 서울: 도서출판 한학문화.
- 김화숙(1991), “무용교육개혁의 긴급성”,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창간호**.
- _____ (2004), “초·중등 무용교과 독립의 정당성과 방향성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5집 2호**.
- _____ (2009), “미래형 교육과정 ‘예술’교과에 무용도 포함되어야...”, 무용·연극·영화교과목추진위원회, **학교예술교육 정상화를 위한 무용·연극·영화 제 1차 합동세미나 자료집**.
- 서예원 외(2011),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무용**,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신현석(2000), **한국의 교육개혁정책**, 서울: 학지사.
-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2010a), **2010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대회 발표자료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_____ (2010b), **2010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회의 결과 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유미희(2009), “한국무용교육의 변천과 과제- 해방이후를 중심으로”, 무용교육의 힘: 소통과 융합, 2009. 6. 26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 홀, **제16회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한국무용교육학회.**
- 윤정민(2010), “무용교수-학습을 위한 뉴욕시 블루프린트”, **무용교육의 힘**, 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 펴냄, 서울: 댄스뷰.
- 이상일(2010), “인성함양을 위한 예술, 문화적 리터러시 시대의 예술교육”, **무용교육의 힘**, 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 펴냄, 서울: 댄스뷰.
- 전병태(2007), **커뮤니티 아트 진흥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경희(2011), “교육대학 예비교사들의 무용 지도력 향상에 관한 인식 및 요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2집 1호.**
- 최현목(2011), **문화예술교육과 지역문화정책**, 대구: 해조음.
- Bernstein, R. R. & Bernstein, M. R.(1999), 박종성(역, 2011), **생각의 탄생**, 서울: 에코의 서재.
- Baldwin E.외(2004), 조애리 외(역,2009), **문화코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도서출판 한울.

인터넷 자료

- <http://www.arte365.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예술을 위한 예술? 예술교육의 학습적 영향.
- <http://cafe.naver.com/cultureportal/854>, 허소민(2013), 누구나 평등하게 예술을 배울 수 있는 곳, 예술중점학교.